

Minor

장애인

장애인과 대학교육

Md.g.1

장애인과 대학교육

1. 장애학생 수험 편의 개선에 관한 건의문;참여연대
2. 연세대 장애 학우 교육권에 대한 공동성명/학교 당국에 보내는 공개질의문; 게르니카
3. 장애인특례입학 실시 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대학생활조사 발표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이권 자료실	
	호번호
A4	157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남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064 팩스/ 796-4745 전담인: 이기갑 나유람 / PSPD

수신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출입 기자
 발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장소영 796-8364, 박순철 795-5918)
 제목 '장애학생 수능시험 응시 편의 개선에 관한 건의문' 발송
 날짜 1996. 11. 11. (총 9 쪽)

보 도 자 료

'장애학생 수험 편의개선 촉구' 및 건의문 관계기관에 발송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 金昌國, 吳在植)는 11월 11일, 오는 13일 치뤄질 수능시험과 관련해 '장애학생들의 수험 편의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국립교육평가원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3. 이 건의문에서는 시각장애학생들과 교사들이, 대학입시가 수능시험으로 전환된 뒤 '지문 길이 증가', '문항 증가' 등으로 수험의 어려움이 많아 '문제 녹음 테이프 제공' 등 수험 편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점자학습 소홀'의 이유로 거부된 사건을 '동등한 수험의 기회 마련' 등 평등권과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도외시한 처사이며, '문제 읽 어주기' '문제 녹음' '시간연장' 등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4. 아울러 이후 모든 국가 시험과 관련해 장애인의 동등한 응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5. 참여연대는 장애인 복지는 '각종 위원회' 설립이나 '복지 대책 발표' 등 미사어구가 아닌 '장애수험생 편의 대책 마련' 등 실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배려와 '평 등권' 차원에서 출발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첨부된 참고자료를 보면, 미국의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배려는 시험시간 연장, 컴퓨터·접자기 등 시험기구설치, 장소 및 시설 편의, 녹음테이프 활용 등 장애학생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국가 시험에 응시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별첨 자료 참조) 시각장애인의 점자 시험 응시의 경우(Plan A) 녹음 카세트 등 여러 편의시설과 함께 논리력 테스트는 일반인 시험 시간보다 2배, 주제별 과목 테스트는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의 시간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7. 참여연대는 차후 관계당국의 조치를 주목하여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 조치와 시민행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별첨 : 건의문, 미국 장애인을 위한 SAT응시 안내서 및 번역문 각각 1부
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404번지 가림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장우안 허희철 나우림/ PSPD

문서번호 참연-11-02
수 신 국립교육평가원장 귀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제 목 장애학생 수능시험 용시 편의 개선에 관한 건의문
날 짜 1996. 11. 11. (총 7 쪽)

장애학생 수험 편의 개선에 관한 건의문

장애학생들에게 동등한 수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1. 국민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는 13일 치뤄질 예정인 대학입시 수능시험과 관련해, 시각장애학생들과 교사들은, 대학입시가 수능시험으로 전환된 뒤 '지문 길이 증가', '문항 증가' 등의 어려움이 더욱 발생하여 용시의 애로점을 호소하고 '녹음 테이프 제공' 등 개선 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점자학습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동아일보 96.10.24 참조)
3. 당국의 수험 편의개선에 대한 거부 이유가 '점자학습 소홀'이라면 '평등권' 등 문제의 핵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판단입니다. '점자학습 소홀'과 '용시편의'를 직접적 연관시키는 것은 객관성과 검증이 부족한 지나친 추론입니다.
장애학생과 교사들의 요구는 <장애학생들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험생과 동등하게 수험의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반학생이 수험문제가 어려워 곤란을 느끼는 것과 장애학생이 용시의 편의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4. 미국의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배려는 시험시간 연장, 컴퓨터·접자기 등 수험기구설치, 장소 및 시설 편의, 녹음테이프 활용 등 장애학생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국가 시험에 응시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별첨 자료 참조) 시각장애인의 점자 시험 용시의 경우(Plan A) 녹음 카세트 등 여러 편의시설과 함께 논리력 테스트는 일반인 수험 시간보다 2배, 주제별 과목 테스트는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의 시간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5. 위의 보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과 보호를 습선수범해야 할 정부 당국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교육과 취업이 필수적입니다. 장애인의 교육보장과 소득보장 제도마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우리 사회복지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과 인권 보장을 습선 수범해서 실천 노력해야 할 정부 당국이 '동등한 수험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장애 학생들의 아픔과 정당한 호소를 외면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장애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겠습니까.

7 장애인 복지는 각종 위원회와 정당의 장애인 복지 대책 발표 등 화려한 미사어구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배려와 '평등권' 차원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8. 본 단체는 귀원과 관계 당국이 원활한 수능시험을 위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수능시험에 대하여 '시험문제 읽어주기' '수험 시간 연장' 등 장애 학생들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배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 시각장애학생 뿐 아니라 모든 장애학생들의 일반인과 동등한 각종 시험응시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9. 본 단체는 귀원과 관계당국의 조치에 주목할 것이며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 조치와 시민행동을 취하여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아동과 다름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별첨 : 미국 장애인을 위한 SAT 응시 안내서 및 번역문 각각 1부

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오재식

1쪽

대학 진학 적성 시험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장애인 학생을 위한 SAT 서비스(SAT Servic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이하 SAT 서비스)

SAT 서비스의 개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각, 청각, 신체적 또는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시험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전에 대해서는 SAT 서비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 위한 정보'(Information for Students and Educators)와 관련 정보는 학습 지도교사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반약 학습지도자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주소를 연락 바랍니다

SAT Servic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P.O. Box 6226

Princeton, NJ 08541-6226

Telephone : 1-609-771-7137(월-금 오전 8시-6시)

e-mail을 보내 주십시오.

두 종류의 시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방식은 SAT I 과 SAT II 시험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각, 청각, 신체적 또는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이, 특수한 편의 시설 속에서 치러야 하는 경우이며
- B 방식(SAT I 만 해당됨) 90분의 추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장애인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등록은 등록 서식과 자격 서식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등록 마감 시간까지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등록 마감 시간은 시험 일자를 참조하십시오. 자격 서식은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팩스나 전화 등의 온라인 등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시표에는 "비표준 시험장"에서 시험이 시행되었다는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2쪽

학생과 학부모 용 : 시험 준비

「장애인 학생을 위한 SAT 서비스」 개요

테스트	A 방식		B 방식	
	SAT I 또는 SAT II		SAT I 만 해당	
자격	공식적인 장애인으로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자세한 것은 학교 학습지도교사에게 문의할 것)		공식적인 장애인으로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자세한 것은 학습지도교사에게 문의할 것)	
등록 서류	SAT 등록 서류 자격서류, 진행료		SAT 등록 서류 자격서류, 진행료	
시험일자/ 등록 서류	시험 기간	등록마감일	번역생략	
	1996.10.12-16	1996.9.13		
	1996.11.2-13	1996.9.27		
	1996.12.7-18	1996.11.1		
	1997.1.25-2.5	1996.12.20		
	1997.3.15-26 (SAT I 만)	1997.2.7		
	1997.5.3-14	1997.3.28		
	1997.6.7-18	1997.3.2		
선행료	일반 학생과 동일		일반 학생과 동일	
시험양식 및 답안지	SAT I : 보통크기 활자체 시험, 큰활자체 시험, 점자 시험, 카세트 시험, Script SAT II : 보통크기 활자체 시험, 큰활자체 시험, 점자 시험, 점자(점자시험은 적은 시험문제를 사용하며, 그 외는 12주 전에 통보될 해야 함)		SAT I : 보통크기 활자체 시험만 가능 답안지 : 기계로 스캔할 수 있는 답안지만 사용	
	답안지: 기계로 스캔할 수 있는 답안지 또는 large block			
시험 시간	SAT I : SAT I 시험은 보통활자체 시험이나 큰활자체 시험을 치르는 장애학생의 경우 정규시험시간의 1.5배, 점자나 카세트 시험 또는 시험문제 낭독자음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정규시간의 2배의 시간 SAT II : 장애인 학생의 대부분의 경우 각 과목당 1.5내지 2시간의 추가시간 장애인 학생에게 적절한 편의시설, 예) 확대경 장치, 타자기/컴퓨터, 점자 장치, 낭독자 또는 기록자, 수화 또는 구두 통역자(구두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90분의 추가 시간은 허락(중 시험시간 4.5시간)	
편의			허락되지 않음	
모의 고사	SAT I : 논리력 시험 SAT II : 주제별 과목시험 추가로 특수한 방식의 시험지는 주문 가능		SAT I : 논리력 시험	
고사장	모교 또는 다른 곳(SAT II는 예외, 이 시험은 국가 고사장장에서 치뤄야함)		국가 고사장	
SAT I 전이용답서비 스(QAS)/ 학생용답서비 스(SAS)	QAS는 5월 시험기간에 이용 가능하며, SAS는 다른 시험기간에도 이용 가능		QAS는 1996. 11.2, 1997. 5.3, 1997. 5.4, 시험일에 이용 가능 SAS는 모든 시험기간에 이용 가능	
성지표 표기	"비표준 고사장"		"비표준 고사장"	



SAT
Program



Scholastic Aptitude Test

For Students and Parents: 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Services

SAT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ee At A Glance for a complete overview of SAT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se services provide testing arrangements for students who have documented visual, hearing, physical, or learning disabilities.

Eligibility is explained in *SAT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formation for Students and Educators* and in materials available from your school counselor.

If your counselor needs to, he or she may contact us at:

SAT Servic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P.O. Box 6226

Princeton, NJ 08541-6226

Telephone 1-609-771-7137 (Monday through Friday from 8:00 am to 6:00 pm)

Send us an e-mail.

There are two types of plans:

- Plan A is for students with documented visual, hearing, physical, or learning disabilities who need to take the SAT I and SAT II tests with special testing accommodations.
- Plan B (SAT I only) is for students with documented disabilities who need 90 minutes extended testing time only.

To register, mail your completed Registration Form and Eligibility Form by the regular registration deadline date. Refer to the test date calendar for registration deadline dates. Because you must send your Eligibility Form with your registration form, you cannot use online registration, fax registration, or telephone reregistration.

Your score report will indicate that you took the test at a "nonstandard administration."



home



search



store



library



communication



help

This entire site protected by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By accessing and using this site, you agree to b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Governing Use and Access to College Board Online."



**SAT
Program**



For Students and Parents: Preparing for the Tests

SAT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t a Glance

Tests	Plan A		Plan B	
	SAT I or SAT II		SAT I Only	
Eligibility	Disability Documentation on file at school Receive accommodations for school-based tests (see your school counselor for details and exceptions)		Disability Documentation on file at school Receive accommodations for school-based tests (see your school counselor for details and exceptions)	
Registration Materials	SAT Program Registration Form, Eligibility Form, and Fee		SAT Program Registration Form, Eligibility Form, and Fee	
Test Dates Registration Materials	Testing Period	Registration Deadline	Test Date	Registration Deadline
	Oct 10-11, 1996 Nov 2-13, 1996 Dec 7-18, 1996 Jan 25-Feb 5, 1997 March 15-26, 1997 (SAT I only) May 3-10, 1997 June 7-18, 1997	Sept 13, 1996 Sept 27, 1996 Nov 1, 1996 Dec 20, 1996 Feb 7, 1997 March 28, 1997 May 2, 1997	Oct 12, 1996 Nov 2, 1996 Dec 7, 1996 Jan 25, 1997 March 15, 1997 May 7, 1997 June 7, 1997	Sept 13, 1996 Sept 27, 1996 Nov 1, 1996 Dec 20, 1996 Feb 7, 1997 March 28, 1997 May 2, 1997
Fees/Fee Waivers	<u>Fees</u> are the same for all students		<u>Fees</u> are the same for all students	
Test Formats and Answer Sheets	SAT I: Regular-type, Large-type, <u>Braille</u> , Cassette, Script SAT II: Regular-type, Large-type, Braille (most currently available in Braille; others available with 12 weeks notice) Answer Sheets: Machine-scannable or large-block		SAT I: Regular-type only Answer Sheets: Machine-scannable only	
	SAT I: Most students with disabilities taking a regular-type or large-type SAT I complete the test in <u>about 1.5 times</u> the			

Student and Parent SAT Information

Page 2 of 4

Testing Time	standard amount of time, students taking a Braille or cassette test, or who use a reader, complete the test in about <u>twice</u> the standard amount of time. SAT II: Most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complete each Subject Test in about <u>1.5 to 2 hours</u>	Students are permitted 90 minutes of extended testing time (4.5 hours total testing time)
Accommodations	Accommodations appropriate for the disability, for example magnifying device, typewriter/computer, Braille device, reader or writer, sign language or oral interpreter (for spoken directions only)	None permitted
Practice Materials	<i>Taking the SAT I: Reasoning Test and Taking the SAT II: Subject Tests.</i> Additional materials in special format can be ordered	<i>Taking the SAT I Reasoning Test</i>
Testing Location	Student's high school or <u>other designated site</u> (except SAT II Writing Test, which is taken at a national test center)	National test center
SAT I Question-and-Answer Service (QAS) / Student Answer Service (SAS)	QAS available during the May testing period, SAS available for all other testing periods	QAS available for the November 2, 1996, January 25, 1997, May 3, 1997, and May 4, 1997 test dates SAS available for all other test dates
Score Report Designation	"Nonstandard Administration"	"Nonstandard Administration"



home



watch



store



library



communication



help

This entire site protected by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By accessing and using this site, you agree to b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Governing Use and Access to College Board Online.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
	A4	221

보도 자료

게르니카

사회와 장애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함께 하는 동아리
(Yonsei University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Alliance)

(우)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대강당
 전화 : 02-361-3646(동아리연합회) · fax : 361-3644(총학생회) · E-mail : guernika@nctian.com
 명예 지도 교수님 :이계준 교수님 (연세대학교 교목 · 한국웨슬리신학회회장 ·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모임)
 지도 교수님 : 양일선 교수님(여학생처장, 무악학사 관장)
 담당자 : 김수현 015-140-3507 임지원 011-378-6927 김형수 019-288-0078

문서번호: 게르니카 98-128

발신일: 1998. 12.8

제목 : 연세대 장애 학우 교육권에 대한 공동 성명서 발표와 공개 질의문 발표에 따른 학교 입장 발표

수신자: 사회부 담당 기자

참조: 공동 성명서 · 공개 질의문(학교 당국 · 총학생회 선본) · 학교 답변 내용

(이하 6 장)

1. 게르니카는 연세 대학교에서 장애인과 사회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인권, 참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주체된 모임입니다.
게르니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 온당한 교육권 · 인권을 누리기 위해, 대학에서 당연한 주체이기 위해 활동합니다.
간혀진 나로부터, 억압하는 사회로부터 자유라는 기치아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장애인 학우들의 문제에 책임을 다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지난 우리 학교 신문 연세 춘추에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 문제를 다루면서 학교 당국자의 발언 중에 "한정된 예산에서 소수의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다수의 일반학생을 위한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연세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관련예산을 확보하기 힘들다."이 실렸습니다. 이에 게르니카는 즉각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 질의문을 보내고 이에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4. 이제 연세대학교 장애인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 교육권의 침해, 불합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차별의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연세대학교 신문 연세춘추에 나타난 학교 당국의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인식은 지성의 전당이라고 자부해온 것과는 너무나도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5. 이에 게르니카에서는 이러한 학교의 기만성을 대사회적으로 널리 폭로하고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입니다.
6. 이러한 공동 성명서 발표를 적극 취재 보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활동에 언제나 아낌 없는 지지와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첨 1. 성명서 내용

2. 질의문(총학생회 후보)

3. 질의문(학교 당국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문)

연세대학교 장애인 인권운동 학생회 게르니카 회장(직인생략)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 연세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 연세대학교 중앙
동아리 매 · 연세대학교 간호대 학생회 · 연세대 이과대 학생회 · 연세대학교 공과대 학생회 · 연
세대학교 문과대학생회 · 연세대학교 의과대간호대연합진료봉사동아리 의정 · 연세대 이과대 풍
물체 · 연세대학교 총기독교학생회 · 강로교신학대학교 장애인선교회 드숨나눔 · 강로교신학대학
교 총여학생회 · 연세대학교 중앙동아리 우리 역사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학생회 · 노수석 추모
사업회 · 연세대학교한국사회연구회 배움터 · 연세대학교언론비평동아리 씨울 · 연세대학교 중앙
동아리 로타렉트 · 서울대 손말사랑 장애문제연구회 · 장애인사랑실천모임 하나 · 둘 · 다섯 · 장애
인권의시설시민축전모임 연세대 장애인권운동 학생회 게르니카)

별첨1)

공 동 성 명 서

연세대학교는 장애학우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연세대학교 신문 연세춘추 10월 12일자에 "한정된 예산에서 소수의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다수의 일반학생을 위한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연세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관련예산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학교 당국자의 기사가 실렸다.

이는 지금껏 우리 연세대학교가 장애학생에 대해 대외적으로 표명하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 우리 장애 학생들은 이에 절연한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연세대는 1960년대 전국에서 최초로 시각 장애인 대학생을 받아들였고 95년에는 장애인 특례입학의 실시를 아주 크게 선전하며 이에 최고의 지성임을 자부했다. 그러면서 특례입학 실시 대학 중 드물게 취지에 합당하도록 중증 장애인 입학에 입학요강에 명문화하였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연세대는 수화를 정식 강의로 개설하고 더디나마 편의시설을 하는 등 장애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실린 기사를 통해 학교 당국이 과거에서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장애 학우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인식이나 철학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연세대에 장애 학우들도 분명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우들은 오직 '장애'를 이유로, 학생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수업의 선택할 권리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권리와 정보를 제대로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장애학우의 등록금이 장애학우만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연세인 모두의 등록금이 모두를 위해서 공유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공유가 아닌 비장애학우를 위해서만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세대가 특례입학을 실시한 후 학교는 대학평가제를 통해 세계 100위권에 들어갈 도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친구와 함께 한 장애 학우가 휠체어를 타고 2002KM를 횡단하여 월드컵을 홍보하고 연세대학교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렸다. 이는 월드컵을 공동개최하는 일본에서도 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듯 연세대는 세계 100위권 대학에만 들어가면, 연세대가 광고만 되면 학교 안에서 장애인 학생들이 계단에서 굴러 다치든 수화 통역사가 없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자 불독이 없어 시각 장애인이 차에 치여 죽든 상관하지 않는다 말인가?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과거 4년 동안, 장애 학생들 보다는 비장애 학생들이, 또는 교수들이 오히려 나서서 수십 차례에 걸쳐 제안하고 탄원하여도 학교에서는 장애인 위한 교육권 확보는 거녕 지원계획조차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연세인의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연세대 학생들은 본인이 내는 등록금이 진정 자신의 교육을 위해 쓰여지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연세대 학교 당국은 장애 학우들의 교육환경문제에 공식적으로 단 한번도 연세 장애인 학생들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요컨대 우리는 학교당국이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도덕적인 항변이나 추상적인 당위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산이 문제라면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역시 요구한다. 이어 그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감사되어야 한다.

물론 위 발언에 대한 학교 당국자의 책임 있는 사과도 병행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여기에 학교가 침묵과 묵살로 일관하며 4년동안 그랬듯이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제도적 대응은 당연하거니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경고 한다.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동 요구안

1. 연세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 학생들의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
2. 연세대는 정원의 입학으로 인한 부가 수입에 대해 투명하게 예산을 공개하라
3. 교육부는 연세대에 예산집행이 투명한지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4. 위 기사에 대해 학교는 책임 있는 사과를 공개적으로 하라.

별첨2)

총학생본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1.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연세인이고 싶습니다.

특별한 예산책정 · 특별 기구 · 단편적인 시설보다 진정한 연세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총학생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조차 장애 학우들과 함께 하지 않는 총학생회는 진정 바라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총학 선본에게 묻고자 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대동제 · 연고제 등 주요 학생회 활동에 장애 학우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장애인으로 특화된 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에 이등 약자인 지체 장애인의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총학생회 자보나 공고 사항 등에 대해 시각 청각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은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학생회 행사에 수화봉역사를 배치하거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 정보를 구축하는 것 등을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노력이 없는 장애 학생을 위한 공약은 단순히 장애 학우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학생회가 장애 학우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학생회의 대표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지금 현재 연세대의 경우 장애 학우들에 대한 지원은 모든 것이 암묵적이거나 시혜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칙 개정입니다. 인식이 따라 가지 못한다면 제도와 법을 정비해서 인식을 강제해야 함은 자명합니다. 학칙의 정비 · 명문화를 통해 장애 학우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각 선본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우리는 장애 학우들에 대한 단순 장학금 지급이나 학교에서 추진중인 자원봉사센타를 반대합니다. 장애 학우에 대한 교육권 확보나 기본 인권의 확보가 자원봉사나 장학금 지급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기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장애 학우들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애를 입은 학우들의 재활이나 교육권 보장 그리고 중도에 장애를 입은 연세대 학우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장애학생 지원센타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선본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4. 우리나라 사회에서 장애인은 아직 민중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편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장애인 노점상 한 분이 분신했음에도 학생 운동 측에서는 자보 한 장 붙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교육 수혜율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실업을 7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도 이들의 권리는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 에바다 능아 학교의 시설비리 척결을 위해 몇몇 대학생들이 2년을 넘게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에서 지원회 준 것이라고는 약간의 지원금과 명의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장애인의 삶이 마치 70년대 노동자들의 지위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학생회들은 전태일 열사가 그랬던 것처럼 장애인 한 분이 장애인 복지법을 안고 대학생 친구를 그리워 하면서 분신을 해야만 운동을 할 수 있을런지요? 노동 운동 통일 운동 등 거의 모든 운동에는 이제 각 역량들이 있고 주체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운동은 그러한 기반이 미미 하기만 합니다. 장애인 운동이야말로 여러분이 선봉에 서야만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에 각 선본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1998년 11월 16일 장애인 인권운동 학생회
계 / 르 / 니 / 카

별첨3)

학교 당국에 보내는 공개 질의문

1. 우리 학교는 지난 95년도에 특례입학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강제사항도 아닌 교육부의 권장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입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한 후 4년이 지났지만 학교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세춘추(98년 10월 12일)에 실린 장애학생에 관한 학교당국의 입장과 이를 취재한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학교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이나 지원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학교측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 96년도에 두 차례에 걸친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거라고는 도서관 출입에 관한 것뿐입니다. 그 당시 학교는 분명히 검토 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조치는 도서관 이외에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3.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지원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학교측 입장은 "재정이 부족하다"였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재정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현재 재정이 부족하다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4. 현행 고등교육법에 보면 특례입학 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보면 (13조)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에 있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면 연세대학교는 특례입학이 시작된 1995년부터 지금까지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달린 이러한 불법행위는 소정의 과태료로 해결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학교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연세대학교와 인접해 있는 서강대는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과 지원정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IMF 상황에서도 연세대와 서강대가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입장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에 관한 고등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장애인을 입학시킨 후에 적절한 혹은 필요한 시설을 해주지 않는 것도 차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세계 속의 우수대학을 진정 지향한다면 이와 같은 이념이 담긴 학칙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학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 4년동안 장애학생들의 많은 탄원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단 한번도 공청회나 좌담회를 통한 공식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당국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장애인 학생회 게르니카나 장애학생들과 접촉을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12월 7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인권 자료실	
AY	21

별첨5)

12월 7일 답변 내용

답변자 (학생처 학생지원과 김태종 외(外) 다수)

(서울대나 서강대처럼) 다른 학교처럼 미리 알아서 못해져서 미안하다.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알려 달라 시설과에 공문 발송 중에 있다.

그리고 질의문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요구함.

이에 게르니카는 우리는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획처에서도 사람이 오고 시설과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묻고 갔는데 우리는 같은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장기적 방안안에서 단일 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이에 학교 측에서는 국가 행정처럼 부처간의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단일 창구를 만들기에 곤란하다.

이 답변에 대하여 게르니카는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장애인 학생 문제가 반짝 행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반론함.

그러나 학교 측은 자료 축적이 되면 그런 문제는 자연 해소될 것이고 이 일은 학생 복지처 거 아닌 학생 지원과에서 맡게 되므로 그럴 염려는 없다고 함.

다시 게르니카에서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연세 춘추등을 통해 공표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으나 학교 지원과에서는 새삼스레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난색을 나타냄

그리고 장애 학우의 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지만 어떠한 약속도 해 줄 수 없다고 못박음.

<조심>

A4-162

		문번호
	A4	162

장애인특례입학실시 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대학생활조사 발표회

일시 : 1996. 4. 18(목) 오후2시~5시

장소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강당

사단
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진행순서

■ 사회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발표

김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한신대학교 교수)

- 장애인특례입학제도 시행 대학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4
- 장애인의 대학교생활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9

■ 토론

- 강병근(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16
- 천종태(장로회신학대학교 교학과장) 22
- 최종균(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사무관) 23
- 김형수(연세대 국문학과 재학생) 24

■ 종합토의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 시행 대학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김성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 한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오늘 한국 사회는 과거 20-30여년전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미 국민 1인당 소득(GNP)이 10,000불을 넘어섰고 국가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결코 아니다.

도리어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가난했을 때 보다 더 공동체 의식이 메마르고 이기적인 탐욕에 빠진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었다. 실제로 인간 삶의 질적 발전을 토대로 하는 유엔의 지표(UNDP)를 보면 한국은 세계 120위 권밖에 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간과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경제적 탐욕만 사로잡혀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도 전보다 증액된 것은 사실이지만-실제로는 그동안 정부의 예산 중 가장 증액이 안된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이고 더욱이 현 정부 출범 이후는 비율 면에서 더 줄어들었지만-그러나 이 복지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복지의 혜택은 도리어 중산층 이상 가진 자에게 더 집중되어 있다.

결국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에서조차 차별 당하고 버림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장애인들은 더 처절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의 장애인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장애인 정책이 시혜가 아니라 인권에 근거해야 한다. 장애인은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장애인은 비록 장애를 입었지만 그 장애 정도에 알맞은 교육과 직업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전문인으로 자립,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장애인 교육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의무교육에서조차 배제하였다. 정부가 장애인의 국민적 기본권을 빼앗은 것이다.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장애인도 의무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아직도 다수의 장애인이 의무교육조차 못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장애인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의 미비 등 여러 가지로 분석되지만 무엇보다도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학교를 갈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원하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 설치하는 장애인에게 주는 부가적 혜택이 아니라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탄핵'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생색내는 것만 했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도리어 차별 받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 제도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장애인이 일찍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가졌으면 특례입학이란 제도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장애인에 대한 기본교육은 외면하고 특례입학제도를 만들어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정치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대학들이 장애인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례 입학이란 제도를 통해 도덕적 이득을 얻고 더 나아가 경제적 수익도 얻는 그야말로 장애인을 이용해 썩 먹고 알 먹는 '장삿속'을 채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지성의 요람이어야 할 대학마저 장애인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만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장애인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연구소는 이런 문제 인식에서 특례 입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의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소 보고서는 편의시설 설치도 하지 않고 자기 잇속만 차리기 위해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고발장이며,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항의이며, 동시에 앞으로 대학들이 어떻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는 대안 자료가 될 것이다.

2. 조사대상의 일반 사항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은 단국대학교를 제외한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6개 대학(강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대구대학교, 부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주우석대학교)과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명지대학교 등 일반대학, 그리고 나사렛신학대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 등 신학대학교 2개, 공주대학교와 제주대학교 등 국립대학교 2개, 전문대 등을 포함하여 모두 21개 대학 27개 캠퍼스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인 지역에 있는 대학이 단연코 우세하게 많았으며 대구대학교와 전주우석대학교 등 지방대학은 5개에 불과하다. 이 중 18개 대학 24개 캠퍼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3. 학교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

<표 1-1> 학교 전체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단위 : %)

항목	B/A	백분율
학교 전체를 알리는 점자안내지도가 있는 학교 수(A) / 학교 전체를 알리는 안내지도가 있는 학교 수(B)	0/18	0
점형유도블럭이 설치된 학교 수(A) / 조사된 총 학교 수(B)	0/18	0
장애인의 등하교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학교 수(A) / 조사된 총 학교 수(B)	0/18	0
장애인과 자원활동자를 연결해주는 정보통신망을 갖춘 학교 수(A) / 조사된 총 학교 수(B)	0/18	0

4.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 계단과 경사로

<표 1-2> 건물 외부 계단과 경사로

(단위 : %)

항목	B/A	백분율
계단의 높이·너비가 규정에 맞는 대학수(A) / 입구에 계단이 설치된 대학수(B)	5/18	28
유효폭이 1.2m이상인 대학수(A) / 입구에 계단이 설치된 대학수(B)	10/18	56
휴식 참을 1.8m마다 둔 대학수(A) / 휴식 참이 필요한 계단이 있는 대학수(B)	3/14	21
규정에 맞게 손잡이가 설치된 대학수(A) / 입구에 계단이 설치된 대학수(B)	0/18	0
2cm이하의 단차가 있는 대학수(A) / 총 대학수(B)	6/14	43
경사도가 설치된 대학수(A) / 총대학수(B)	7/17	41
규정에 맞게 경사도가 설치된 대학수(A) / 총대학수(B)	0/18	0

5.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문

출입문이 이중문인 경우 바깥출입문과 안출입문 사이가 1.2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출입문의 유효폭은 1.2m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출입문에는 손잡이가 바닥에서 80cm-85cm사이에, 수평 혹은 수직의 긴 막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조사 결과는 45%만이 규정에 맞는 이중문을 설치하였고, 손잡이가 규정에 맞는 것은 단지 13%뿐이다. 손잡이가 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대학도 상당수 있는데, 강남대학교, 서강대학교, 용인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 캠퍼스 등이 있다.

6. 강의실과 도서관

<표 1-3> 강의실과 도서관

항목	B/A	백분율
출입문의 유효폭이 맞는 강의실이 있는 대학수(A) / 강의실이 있는 대학수(B)	1/18	5
경사로가 설치된 강의실이 있는 대학수(A) / 계단식 강의실이 있는 대학수(B)	3/13	23
규정에 맞는 도서관이 있는 대학수(A) / 도서관이 있는 대학수(B)	0/15	0

7. 복도

<표 1-4> 유효폭과 손잡이

항목	B/A	백분율
복도의 유효폭이 정상인 대학수(A) / 총 대학 수(B)	8/18	44
손잡이가 규정에 맞는 대학수(A) / 복도가 있는 대학수(B)	0/18	0
복도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대학수(A) / 복도가 있는 대학수(B)	5/18	28

8. 승강기

<표1-5> 승강기

항목	B/A	백분율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대학 수(A) / 5층 이상의 건물이 있는 총 대학 수(B)	13/18	72
규정에 맞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대학수(A) / 5층 이상의 건물이 있는 총 대학수(B)	0/18	0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대학 수(A) / 총 대학 수(B)	0/18	0

9. 화장실과 세면대

<표 1-6> 장애인전용 화장실

항목	B/A	백분율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설치된 대학수(A) / 총 대학수(B)	4/18	22
유효폭90cm이상인 화장실 출입문이 있는 대학수(A) / 총 대학수(B)	0/17	0
좌변기가 설치된 화장실이 있는 대학수(A) / 총 대학수(B)	12/17	70
점자안내표시가 있는 화장실이 있는 대학수(A) / 총 대학수(B)	0/17	0

<표 1-7>세면대와 거울

항목	B/A	백분율
화장실에 규정에 맞는 세면대가 있는 대학수(A) / 총 대학수(B)	0/18	0
냉온수 점자표기가 있는 대학수(A) / 총 대학수(B)	0/18	0
화장실에 규정에 맞는 거울이 설치된 대학수(A) / 총 대학수(B)	0/18	0

10. 주차장

공공 교통 수단을 이용함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중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자가용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사치품이 아니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에서도 교육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전체주차장의 1%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은 주차대수 1대당 너비 3.3m 길이 5m이상이고,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해야 하고, 주요 출입구 또는 경사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 맞는 주차장이 설치된 대학교는 경희대와 연세대에서도 한 건물 앞에만 있고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고려대학교 서울이나 연세대학교 서울 등의 의과대학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으며 그 자리에 장애인 마크를 설치해놓고는 옆의 푯말에는 '내빈석'이라고 표시해 두었으며 평소에도 내빈 전용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11. 공중전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발표된 지 몇 년이 흘렀어도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제주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내에는 아직도 장애인용 공중전화가 한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조사된 대학내의 일반공중전화는 대부분 공중전화 입구에 3cm이상의 턱이 있으며 공중전화 박스도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며 동전투입구 등이 너무 높아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중전화 숫자 버튼에 점자로 표기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중전화를 알리는 안내표시나 점자안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12. 건물내 계단 및 경사로

<표 1-8> 건물내 계단의 유효폭과 손잡이

항목	B/A	백분율
높이, 너비가 규정에 맞는 계단이 있는 대학수(A) / 총 대학 수(B)	3/18	17
계단의 유효폭이 1.2m이상인 대학수(A) / 총 대학 수(B)	8/18	44
휴식 참을 1.8m마다 둔 대학수(A) / 휴식참이 필요한 계단이 있는 대학수(B)	4/17	24
규정에 맞게 손잡이가 설치된 대학수(A) / 총 대학수(B)	0/18	0
경사로가 설치된 대학 수(A) / 총 대학 수(B)	5/18	28

장애인의 대학교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 보고서

1. 조사 대상의 일반 사항

<표2-1> 대학별 설문 응답자

학교	장신대	서강대	대구대	연세대	계
설문응답자	1	5	21	8	35

<표2-2> 설문응답자의 소속단과대별 분포

소속 단과대학	사범대 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학) 대학	인문과 학대학	문과대 학	사회과 학대학	기타	계
설문 응답자	20	1	4	2	5	2	1	35

<표2-3> 설문응답자의 장애유형별 구분

장애유형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계
설문응답자	21	9	5	35

<표2-4> 설문응답자의 장애등급별 구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설문응답자	11	17	3	1	3	35

2. 조사 현황 및 결과

1)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있는가?

	매우어렵다	조금어렵다	괜찮다	매우괜찮다
설문응답자	14	8	11	2

2)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다른학우들과의 대인관계	13	7	10	0	30
학교시설	8	13	8	0	29
학사관리	13	8	9	0	30
기 타	0	1	0	5	6
계	34	29	27	5	95

3)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학과내에서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	2	1	5	16	24
등아리 활동이 어려워 타과 학우를 사귄 기회 가 없다	8	5	11	0	24
교수님과의 면담을 하 기가 쉽지않다	13	8	3	3	27
선배들과 교류할 기회 가 적다	7	11	4	3	25
기 타	0	1	1	0	2
계	30	26	24	22	102